

2	제20차 노동조합 집행부 회의 개최
4	2010년 사립대학연맹 노동조합 대표자 연수 참가
5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간담회 참석(이사장 주관)
9	제5차 대의원회의 개최
9	제21차 노동조합 집행부 회의 개최
10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간담회 참석(총장 주관)
16	제22차 노동조합 집행부 회의 개최
17	제54차 임시총회 개최
18	직원회의 참석
22	제74회 직원인사위원회 참석
23	제23차 노동조합 집행부 회의 개최
24	2010년 한국노총경산지부 대의원대회 참석
25	직원정년(명예)퇴임식 참석

◆ **대학 교육 강화 움직임, 어디서 불어 왔나** : 교수신문
당신의 강의는 안녕하십니까?<2010.2.22>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9747>

◆ **한국대학신문 칼럼/이슈 코너**

특집연재 : 대학이 미래를 만든다

기획연재 : 클린캠퍼스 캠페인

<http://www.unn.net/ColumnIssue/>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발행 주간대학교육 신청**

온라인신청 : http://www.kcue.or.kr/news/News_Form.php

◆ **KOCW(Korea Open courseWare)**
: **고등교육 교수학습자료 공동활용 서비스**

국내 대학강의, 해외공개 강의, 석학 특강,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강의 등 온라인 강의 무료 수강 가능

<http://www.kocw.net>

◆ **인터넷 기반 무료 공개강의 소개글**

미국 뉴욕주립대학 올바니 도서관 배송일 사서 블로그

<http://cliomedia.egloos.com/2524791>

時 論

‘파랑새’를 찾아서

동화 속 파랑새는 바로 우리 주변에

어린 시절 누구나 한번쯤은 읽은 ‘파랑새’는 벨기에의 극작가이자 시인인 마테를링크가 쓴 동화이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어린 남매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요술 할머니의 부탁을 받고 파랑새를 찾아 떠난다. 남매는 추억의 나라, 미래의 나라 등 험난한 여정을 거치지만 파랑새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꿈에서 깬 뒤 비로소 찾아낸 파랑새는 바로 자기 집 새장에 있었다는 내용이다.

우리 조직의 ‘파랑새’는 어디에 있나

대학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개인이나 조직은 미래의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한 ‘만능 열쇠’를 찾으려 한다. 어떤 대단한 사업의 유치나 획기적인 제도의 개선, 조직 개편 등을 통해 대학의 위기를 한꺼번에 극복할 방안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화속 ‘파랑새’처럼 ‘만능열쇠’ 또한 실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화속이 아닌 현실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것일까. 우리 조직 역시 둘러보면 곳곳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자신들의 집안 새장에서 파랑새를 찾았듯 우리의 ‘희망’ 역시 바로 우리 곁에, 바로 우리들이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몇몇 소수의 집단이나 일부의 특출한 사업 성과만으로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위기의식 못 느끼면 ‘술 안의 개구리’ 될 수도

우리 조직은 과연 앞으로 다가올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상투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에 우리 조직은 얼마나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혹은 이미 한참 뒤쳐져있음에도 서서히 끓고 있는 ‘술 안의 개구리’처럼 위기의식을 감지조차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대구경북 출산을 14년만에 반토막’, ‘위기의 대학 변해야 산다’라는 신문기사들의 제목에서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을 읽을 수 있다면, ‘아무리 뽐아도 모자라는 업무인력’, ‘교원확보를 높아져도 학생만족도는 제자리’, ‘3년째 등록금 동결 사태에도 늘어만 가는 예산 요구’등은 우리 조직이 처한 현실이다.

‘소통과 화합’, 번듯한 건물에 갇히다

‘○○대와 우리 대학의 차이점은 가장 높은 건물이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이나 교직원들을 위한 본관 건물이나 하는 것이다.’ 본관 전망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어느 학생들의 말이다. 가장 높고 번듯한 우리 대학 본관 건물에는 수십 개의 행정부서들이 제각각 나뉘어 들어앉았고, 각 사무실에는 저마다 칸막이로 성을 이루고 있어 방문자가 선뜻 말을 붙이기도 어려운 모양새다. 이러다보니 학생들에게는 어딘가 위압감을 주게 되고, 부서별, 개인별로도 소통과 화합이 쉽지 않다. 칸막이를 뜯어내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건물 구조를 핑계 삼아 정작 우리 자신이 폐쇄적으로 변해가는 것은 아닌지 자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늦기 전에 우리의 ‘파랑새’를 찾자

더 이상 늦어지면 우리의 ‘파랑새’는 영원히 찾지 못할 지도 모른다. 굳이 대학이 내세운 슬로건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진정 학생이 행복한 대학,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대학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단체나 구성원들은 개개인의 이익보다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발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자. 20년, 30년, 100년 뒤에도 지금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굳건히 서 있어야 할 대구대학교는 우리가 만들고 지켜가야 할 조직인 것이다.

노동조합 이벤트

<http://union.daegu.ac.kr>

Culture 4U 행사는 매주, 매월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다가갑니다.

대구대학교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Culture 4U 이벤트 당첨자 발표

“3월 월간 이벤트”

구매팀

최 중 환

“2월 넷째주 주간이벤트” 다빈치커피 2잔

교무팀

장 성 대

사회과학대학 행정실

최 미 영

Happy Birthday | 이달의 생일자 | [2010. 3. 1 ~ 3. 31]

이름	소속	생일	이름	소속	생일
조규석	수업학적팀	3.1	권난경	산학연구지원팀	3.14
황시하	관재팀	3.1(⊖1.16)	정오기	사범대학행정실	3.14(⊖1.29)
권미숙	자연과학대학행정실	3.02	양미란	비서팀	3.16
김교생	관재팀	3.02	박해진	사범대학행정실	3.22(⊖2.07)
서동현	정보통신운영팀	3.4(⊖1.19)	김동환	관재팀	3.25(⊖2.10)
김도균	입학팀	03.06	이상일	취업지원팀	3.26(⊖2.11)
김민정	산학연구지원팀	3.06	박동원	입학사정관팀	3.28
박재숙	학술운영관리팀	3.06	이승철	대외협력팀	3.29(⊖2.14)
김정화	학술운영관리팀	3.09	김종구	홍보팀	3.30(⊖2.15)
황정숙	중앙박물관학예실	3.13(⊖1.28)	오창룡	평생교육원행정실	3.30(⊖2.15)